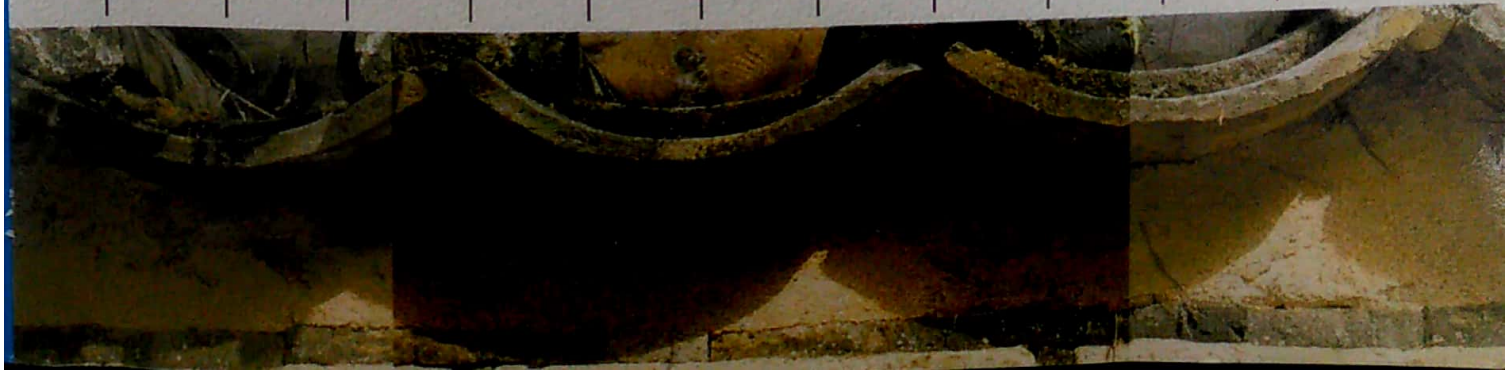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어요

제20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입상작품집

전주문화원



Scanned by CamScanner

제20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 입상작품집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어요

인 쇄 : 2003년 6월 2일
발 행 : 2003년 6월 10일

발행인 : 김 광 호
편집인 : 송 영 상

발 행 : 전주문화원
http://www.jjmhy.or.kr
E-mail:cjmhy7500@yahoo.co.kr
㉾561-81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5
☎·FAX(063)288-7500

인 쇄 : 신아출판사
E-mail / shina@shin-a.co.kr
☎·TEL(063)275-4000 FAX(063)274-3131

〈비매품〉

Scanned by CamScanner

풍성한 오월, 우리의 전주

전주완산서초등학교
2학년 3반 손수연
엄마 송유미

파랗고 높은 오월의 하늘처럼
우리 고장 전주는 꿈이 많은
도시랍니다
맑은 전주천에 쉬리가 살고
신록이 우거진 오월이 오면
풍남제가 열려요.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우리의
온고을 전주.

문화재가 풍부하고
대사습놀이가 이 땅을 울리면
합죽선과 비빔밥은
외국사람들의 원더풀! 소리에
우리고장은 웃음꽃이 피지요.

아름답고
살기좋고
깨끗한 우리의 전주.

오래오래
우리가 가꾸어야 할 과업입니다.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장려상

내 이름 비빔밥

전주북일초등학교
3학년 4반 조수현
엄마 정보은

하얗고 동그란 내 얼굴
수줍어 수줍어
항상 고운 화장하고,

아담하고 동그란 그릇에
소복히 소복히
항상 고운 화장하고,

노오란 부드러운
초록의 싱그러운
빨간 화려한
고소한 아름다움
내 얼굴.

아가 얼굴 만지듯이
어루만져
색색도 예뻐
모두를 사랑하는
내 얼굴.

내 이름
비빔밥

Scanned by CamScanner

비빔밥

전주용흥초등학교
3학년 5반 신지연
엄마 최난아

전주의 자랑 비빔밥
비빔밥을 먹으면 전주의 멋과 향이 느껴진다.
외국인들도 비빔밥을 먹으면 그 맛에 홀딱 반한다.
그 맛이 좋아 외국인들도 전주에 많이 온다.
그 맛 때문인지 요즈음에는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편리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유명해졌다.
앞으로도 계속 비빔밥이 세상 모든 나라에 알려졌음 좋겠다.
비빔밥아 파이팅!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입선

맛있는 전주 비빔밥

전주평화초등학교
5학년 4반 이주순
엄마 김선자

여러가지 형형색색의 야채 아기들
빠알간 고추장 아빠
노랗지만 투명한 참기름 엄마
하얀 밥 삼촌

다른 것은
전부
싫어싫어싫어.

이 가족은 하나 되어
한 맘 되어
즐겁게 신나게
비벼지는걸
좋아한다.

이 가족이
비벼지는 날
허기진 우리들의 배를
가득 채워
배부르게 된다.

이 가족이 행복해지는 날
환상적인 멋진
전주의 자랑거리
전주 비빔밥이
탄생한다.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입선

비빔밥

전주평화초등학
2학년 2반 구본
엄마 백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내 색깔이 먼저

참기름
고추장
간장
내 맛이 최고

노오란 콩나물
빠알간 김치
푸른 호박
내 요리가 우선.

하얀 둥지 속에
내가 언가,
서로서로
좋아하지요.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입선

먹거리 고장

전주송북초등학교
4학년 5반 박인채
아빠 박종희

우리 고장은 먹거리 고장.
저와 함께
환상의 고장으로 떠나 보아요.

먼저 오색나물
움푹 패인 그릇에
쓱싹 비벼
무엇인가 했더니
매콤달콤 비빔밥.
누구든
비빔밥의 매콤함에
안 넘어갈 수 없어요.

각설이 타령,
가위질하며
누군가 했더니
엿장수 아저씨.
누구든
엿의 쫀득함에
안 넘어갈 수 없어요.

떡메 치는
돌쇠모습.
무엇 찌는가 했더니
쫄깃쫄깃 인절미.
인절미의 쫄깃함에
안 넘어갈 수 없어요.

비빔밥, 엿, 인절미는
맛 좋은
우리 먹거리 친구.

Scanned by CamScanner

전주 비빔밥이 좋아요

전주삼천초등학교
5학년 4반 신태호
엄마 최명희

농부 아저씨들의
땀방울 들어 있는
비빔밥이 좋아요!

무공해 나물들이 어우러진
자연의 선물
비빔밥이 좋아요!

엄마 아빠의
정성이 깃든
비빔밥이 좋아요!

나는
땀방울과
자연과
정성이 어우러진
전주 비빔밥이
좋아요!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입선

비빔밥

전주평화초등학교
5학년 4반 김지영
엄마 노미자

콩나물 한 줌
시금치 한 웅큼
상추 세 잎
고추장 듬뿍
참기름 방울 똑!
떨어뜨리고

할머니 따스한
손이
이리저리
휘젓는다.

허기진 내 뱃구레를
약손으로
비벼주듯이…

Scanned by CamScanner

전주비빔밥

전주진북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예찬
엄마 최길영

새콤 달콤
야채 넣고 고기 볶아
고추장 넣어
쓱쓱 비벼
한 입에
꿀꺽!
먹기 싫은 야채도
너무 너무 꿀맛이야
요술쟁이
전주 비빔밥

Scanned by CamScanner

콩나물 속에 전주의 사랑을

전주송북초등학교
3학년 7반 신자은
엄마 최순호

뽀로록 쭉쭉
콩나물이 사랑을
먹고 자라요.

하하하 호호
콩나물이 기분이
좋아 춤을 추지요.

콩나물에
사랑을 넣었던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는지,
콩나물은 쫄깃쫄깃하지요.

왜 콩나물 국물이
얼큰한지 아세요.
그것은 전주의 사랑을
듬뿍 담아 드렸기 때문이에요.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입선

지구촌의 비빔밥

전주북초등학교
5학년 4반 배한솔
엄마 국문순

신선한 콩나물
빠알갛고 매콤한 고추장

물과 물고기가 만난 것처럼
야채와 고추장이 한 몸 되었네

세계 속으로 번져가는 비빔밥
지구촌 사람들 땀
"우와 맛있어요"

독특한 전주의 비빔밥 먹고
우리 모두 한 마음

Scanned by CamScanner

운문부 입선

전주 비빔밥

전주서문초등학교
1학년 3반 민승아
엄마 최미애

유기 그릇 안의
하얀 도화지 위에
주황 연두 고동
노랑 초록 빨강 색색들이
자기들만의 비빔밥 무지개를
그려 넣어요.

유기 그릇 안에
비빔밥 무지개들이
춤을 추는데
빨강 해님과
노란 달님이
무지개 속으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어느 새 맛있는
전주 비빔밥 완성.

Scanned by CamScanner

산문부 입선

비빔밥을 잘 만드는 시장님

전주신성초등학교
2학년 1반 박선민
엄마 김미연

비빔밥!

넉넉한 재료와 맛, 멋, 영양 보기에도 예쁘고 18가지나 되는 재료는 함께 잘 어우러져 고소하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며 내 키를 무럭무럭 자라게 했다. 어린이날 아빠가 사주신 음식이다.

전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한다. 영화제, 종이축제, 소리축제,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주 많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이라고 했다. 우리 전주를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다.

며칠 전 경기전에서 열리는 풍남제에 우리 가족이 구경을 갔다. 온갖 먹거리와 볼거리가 여기저기서 날 유혹했다.

닥나무가 변하여 나무가 되는 법! 너무너무 예쁜 종이인형, 태극선, 부채, 여러 가지 체험현장!

우리 전주 한옥 마을이 나날이 깨끗해지고 멋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전주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엄마께서, 전주는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고 하셨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다.

Scanned by CamScanner

전주!

후백제의 도읍지, 풍남문이 있고 호남의 중심지. 한옥마을, 경제의 중심지, 농촌 공동체의 중심, 주변 삶이 잘 어우러진 깨끗한 도시, 효를 알고 예절을 아는 도시, 전주에 살고 있는 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전주를 들르는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고 싶어한다. 육식, 채식, 역사와 문화 삶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아무렇게나 비비면 될 것 같은데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제 맛이 난다.

비빔밥을 잘 먹을 수 있고 맛을 알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비빔밥을 알리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전주시 시장님! 멋진 미래의 내 모습이다.

비빔밥 시장님!

"오! 비빔밥, 매워요, 맛있어요. 비빔밥 먹으러 전주로 오세요."

Scanned by CamScanner

산문부 입선

영양 만점 비빔밥

전주인봉초등학교
4학년 3반 이길재
엄마 최영미

내가 살고 있는 전주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인 것 같다. 4대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완산벌에 태어난 것 또한 축복인 것 같다.

전주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에서 난 비빔밥을 으뜸으로 꼽고 싶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야채와, 나물이 어우러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맛을 내고 있다. 우리 식구들은 외식을 할 때면 '비빔밥을 먹고 싶어' 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비빔밥을 먹을 때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오이가 들어 있어 조금은 싫지만 각종 재료들이 그 맛을 다른 맛들로 변화시키는 것 같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통닭보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좋아하는 맛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비빔밥이 우리 전주인에게 먹거리가 된다는 걸 깨달았고…… 언젠가 TV에서 전주비빔밥이 기내 음식으로 제공된다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전주비빔밥은 우리 도민의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기호 음식이 되어 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전주의 사랑과 정성과 맛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다른 전주의 음식도 개발하여 지구촌에 알리는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Scanned by CamScanner